석가모니·약사·아미타부처님을 한 폭에

'세 부처의 모임–상주 용흥사 괘불' 展

국립중앙박물관 서화관 5.4~10.28
13번째 괘불전, 상주 용흥사 괘불 등
5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서도 소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용흥사 괘불(보물 제1374호). 조선 1864년, 삼베에 채색, 1003×620cm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불기 2562년(2018)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5월 4일(금)부터 10월 28일(일)까지 서화관 불교회화실(상설전시관 2층)에서 '세 부처의 모임-상주 용흥사 괘불' 展을 개최한다.

2006년 5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선보여 온 한국의 괘불 전시를 잇는 열세 번째 전시로, 이번 전시에서는 보물 제1374호 상주 용흥사 괘불을 전시한다.

용흥사는 경상북도 상주시 연악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진감선사(眞鑑禪師) 혜소(慧昭 · 774~850)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오늘날까지 꾸준히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용흥사에 전해지는 괘불은 석가모니불과 약사불, 아미타불의 모임 장면을 묘사한 불화이다. 세로 10m, 가로 6m가 넘는 대규모의 화면에는 법회에 참여한 불보살과 대중 등으로 가득 차 있다.

모임의 주재자는 석가모니부처님으로, 그의 몸에서 발하는 영롱한 빛은 모임의 시작을 알린다. 약사부처님은 질병의 고통이 없는 유리광세계를, 아미타부처님은 즐거움만이 가득한 극락세계를 다스리는 존상이다.

사람들은 세 부처에게 살아서는 무병장수하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했다. 현재 전해지는 괘불 110여 점 가운데 세 부처를 함께 그린 괘불은 5점만이 남아 있어 '용흥사 괘불'은 매우 귀중한 예에 속한다.

'용흥사 괘불'은 1684년 5월, 90여 명이 넘는 대인원이 참여하여 조성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폐허가 된 용흥사를 다시 일으키는데 큰 힘을 쏟은 홍흡(弘洽) 스님이 괘불 조성에 필요한 시주를 유도하여 일반인과 승려 50여 명이 경제적으로 후원했고, 불화는 인규(印圭) 스님을 수화승으로 하여 다섯 화승(畵僧)이 그렸다.

300여 년 전의 그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선명하고 화사한 색채, 다채로운 문양은 절로 감탄을 자아낸다. 특히 연꽃과 다양한 꽃, 넝쿨, 상서로운 구름무늬 등이 괘불 곳곳의 여백을 가득 채운 점은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이번 전시는 사찰의 큰 법회 때에만 모습을 드러내 평소에는 보기가 힘든 용흥사의 대형 괘불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괘불을 보관하는 함과 함께 익살스런 표정의 나한상, 신들의 모임을 그린 신중도, 지옥의 왕 중 다섯 번째 왕인 염라대왕을 그린 현왕도 등도 함께 선보임으로써 천년고찰 용흥사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시와 연계하여 용흥사의 괘불에서부터 역사, 불교조각, 불교회화를 종합적으로 조명한 전시도록을 발간하여 일반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이번 괘불전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오후 9시까지)에 박물관 큐레이터의 상세한 전시품 해설과 관람객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는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도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밖에 상설전시관에서는 '호패에서 찾아낸 동학생 이정보의 삶(조선실, 5/2)', '십이지의 발생과 변천(통일신라실, 5/9)', '그림 속 성현 이야기(서화실 Ⅱ, 5/16)', '전시품의 안전(불교조각실, 5/23)', '조선의 비밀병기 비격진천뢰(조선실, 5/30)' 등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전시품에 대한 풍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

불일미술관 5월 전시

'한국 근현대 선사 진영' 展
'상을 여읜 적멸–상, 그 너머의 세계' 展
법련사 불일미술관서 5월 31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은 201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5월 31일(목)까지 홍나연 작가의 초대기획전 '한국 근현대 선사의 진영' 전과 스님들의 구도정신을 표현한 '상을 여읜 적멸-상, 그 너머의 세계' 전을 제2전시관과 제1전시관에서 각각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 모셔지는 진영은 한국 선의 중흥조인 경허선사를 필두로 혜월선사, 운봉선사, 향곡선사, 현 조계종 종정 진제예하까지 정통 임제종의 법맥을 두루 섭렵하고 있으며 한국 근현대 선종에 큰 족적을 남긴 8대 총림의 만공선사, 혜암선사, 경봉선사, 서옹선사, 동산선사, 석우선사를 모두 모셨으며, 더불어 전강선사, 석우선사의 진영 등 총 18작품이 전시된다. 또한 한국 선종의 큰 획을 그은 네 분의 선지식이 담소를 나누는 아주 희귀한 작품도 선보인다.

'한국 근현대 선사 진영' 전은 홍나연 작가가 고고미술사학도로서의 학술적 고찰과 불교회화도의 오랜 실기훈련이 합일의 결실을 맺은 진영연구이다.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오랫동안 학술적인 고찰 없이 왜곡된 주먹구구식의 도제교육과 안일하고 획일적으로 옛 것의 오류조차도 그대로 임모하고 답습하고 있는 지금의 근 · 현대 선사 진영양식을 터럭 한 올까지 그대로 표현했던 옛 진영작가들의 전통성의 정신성을 계승하고 오늘날의 시대성과 현대의 미감의식을 반영하여 창조적으로 재창작한 것이다. 이는 현대, 나아가 미래의 대중들에게 다소 구태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진영을 본질적인 권계(勸誡)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의 진영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함이다.

홍나연 작가는 불화 작업을 할 때 〈금강경〉을 틀어놓고 작업을 한다. 의궤와 소의경전에 입각한 불교 미술의 상을 그려내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것은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만약 색신으로써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써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모두 사도를 행함이라. 능히 여래를 보지 못하리라.(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임을 알고, 늘 죄송한 마음을 가졌었다.

전통불교의 도상과 의궤에 의한 불화 작업과 위대한 선지식들의 모습을 오롯이 담아낸 진영 작업 외에 부처님의 유훈인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自燈明 法燈明)"는 말씀을 따르기 위한 작업으로 '상을 여읜 적멸' 전을 함께 진행한다.

수 천 년 전,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 깨달음을 얻은 선각자들의 생을 고요히 바라보면 나타나는 '상, 그 너머의 세계'를 '상을 여읜 적멸' 전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다. 이 전시는 의궤에 머물러 미완이었던 선사들의 진영이 '상, 그 너머의 세계'로 화현되기를 서원하는 홍나연 작가의 회향이다.

박재완 기자


경허 성우대선사 진영. 95×158cm 비단에 채색


'무상정각' 장지에 수먹

'마음, 색을 입히다' 展

불화가 정혜성(송헌) 두 번째 개인전
5월 9일부터 15일까지 갤러리 아리수



정혜성 作 '금니수월관음도'

불화작가 송헌 정혜성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두 번째 개인전 '마음, 색을 입히다' 전을 5월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갤러리 아리수에서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정 작가가 첫 번째 개인전을 통해 선보인 연꽃, 소나무, 모란 등을 새롭게 작업한 왕실문화그림과 고려불화의 전통기법을 그대로 잇는 불화 '괘불', '수월관음도', '금니 불화' 등을 선보인다.

정 작가는 "마음 밖에 법이 없으니 눈가득히 푸른 산이다. 제법실상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자연의 법칙과 우주질서가 부여한 장자의 '불성의 선의'로 보답하려는 보살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아름다운 빛이 되어 노자의 '선의 경지'로 귀결되고 싶다"며 "하루하루 수행정진을 통해 저절로 마음수양과 영혼이 닦여지는 안빈낙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세계와 창조의 작품을 만들어 가며, '마음, 색을 입히다'라는 주제를 통해 함께 상락아정을 이루고 싶다.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기록하고, 역사의 전통을 반성하고 모색하고자 왕실문화와 불화를 통해 전통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이번 전시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설명했다.

정혜성 작가는 개인전 2회와 국내외 초대전 · 아트페어 · 공모전 · 그룹전을 열었다. 2015년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화가부문)을 수상했다. 현재 불화작가와 전통채색화가, 송헌 전통채색화 연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작품은 청와대, 동국대, 조계종 총무원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